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시 만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인(心因)적 변화를 응용한  
병(瓶)의 조형연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 은 선

심인(心因)적 변화를 응용한  
병(瓶)의 조형연구

김시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 은 선

# 인 준 서

이은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사람들의 감정은 살아온 시간 동안 내적으로 정체(停滯)되어있는 감정과 외면으로 표출되는 유동(流動)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 주목하여 실제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꽃, 돌과 같은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어 주관적 해석을 더하여 '병(瓶)'의 모습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병(瓶)'은 오랜 기간 여러 문명을 통해 제작되어진 만큼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또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병(瓶)'을 실용적 기능이 있는 사물로 형상화 하기 보다는 하나의 '오브제(object)'로 시각화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느끼는 순간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필요한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감정의 시각적 표현방법으로는 선행 작품의 고찰과 연구자가 느끼는 감정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실체화 할 수 있게 주요요점(point)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특히 조각, 연마 등의 행위 및 꽃잎의 '겹(layer)', 돌의 형태와 같은 표현수단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개성있는 조형표현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병(瓶)'이 가지고 있는 실용정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적 감정을 이입한 오브제(object)작업을 통하여 현대인들의 감성과 공유할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는 순수한 조형적 표현방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연구자의 시점을 통해 형상화 된 작품을 보았을 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할지 상상하며 현대인들과 다양한 감정의 교감을 통해 대중의 감성과 감정에 호응할 수 있는 조형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1. 서론 .....	1
1) 연구동기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3
2. 본론 .....	5
1) 조형적고찰 .....	5
(1) 작품의 디자인과정 .....	5
(2) 작품의 전개과정 .....	11
2) 작품 설명 .....	16
3. 결론 .....	38

## 참고 문헌

## ABSTRACT

## 도판 목록

[ 도판 1 ] Titane Elina - Flower .....	6
[ 도판 2 ] Yoon Sol - variation series .....	6
[ 도판 3 ] Burke Molly - Hold Fast_small .....	7
[ 도판 4 ] YongJoo Kim - Brooch .....	8
[ 도판 5 ] Barb Vogel - Rest, Lillies .....	9

## 표 목 록

[ 표 1 ]	작업과정 .....	4
[ 표 2 ]	디자인과정 .....	10
[ 표 3 ]	초반작업 성형과정 .....	13
[ 표 4 ]	본 연구 성형과정 .....	14
[ 표 5 ]	점토의 특성연구 .....	15

## 작 품 목 록

[ 작품 1 ] Blossom _ 1 .....	16
[ 작품 2 ] Blossom _ 2 .....	17
[ 작품 3 ] vase_1 .....	18
[ 작품 4 ] vase_2 .....	19
[ 작품 5 ] vase_3 .....	20
[ 작품 6 ] vase_4 .....	21
[ 작품 7 ] vase_5 .....	22
[ 작품 8 ] vase_6 .....	23
[ 작품 9 ] vase_7 .....	24
[ 작품 10 ] vase_8 .....	25
[ 작품 11 ] vase_9 .....	26
[ 작품 12 ] vase_10 .....	27
[ 작품 13 ] vase_11 .....	28

# 1. 서 론

## 1) 연구동기 및 목적

본 연구는 사람이 지각하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포착(capture)’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이 주요 목적이었다. 처음부터 다양한 사람의 심리상태를 연구하기 보다는 본인의 심리상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본으로 조형적 모티브(motive)를 착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감정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조형표현과 극히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어지는 요소에 대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감정에 대한 조형적 표현방법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본인의 감정적 요소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철학자 오가와 히토시(2018)는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감정에 대해 하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감정을 마치 수많은 ‘양파의 껍질’로 비유하여 집합체를 이룬 양파의 모습으로 설명하였다.<sup>1)</sup> 또한 *사람은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할 때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품게 되는데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행위는 그에 걸 맞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의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감정을 느낄 때, 외부로 드러나는 감정이 있으면 내부로 가려지는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지는 감정의 ‘겹(layer)’은 그 사람의 상황, 마주한 사람과의 친밀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보여지는 감정의 껍질이 겹쳐져 보

---

1) 오가와 히토시, [ 인간은 양파다. ], 홍익출판사, 2018, p.8

2) 위의 책, p.12

일 수도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고, 연구자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여러 '겹(layer)'으로 둘러 싸여있는 꽃잎과도 같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감정'에 대한 관용적 표현 중 '감정이 흘러넘친다'는 말에서 연구자는 영감을 얻었다. 이 관용구에서는 감정을 마치 '액체'와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연구자는 인간의 신체를 과거로부터 액체를 담는데 사용되어져 온 사물인 '병(瓶)'과 일치시켜 그 자체를 하나의 '오브제(object)'로 바라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인의 감정에 대한 조형적 표현방법으로써 양파의 껍질과 같은 겹겹이 둘러싸인 꽃잎의 형상과 '병(瓶)'의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여 순간적이며 다양한 감정의 포착을 조형적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감정의 시각화에 대한 방법론적 도출을 시도하였다. 먼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작품 및 작가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특히 작품과 작가 선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겹(layer)’이라는 복수의 형상이 겹쳐져있고, 잘 표현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감성과 감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감정의 표현방법으로써 도자기 제작의 기법에 의한 결과와 소재의 특성에 착안하여 감정표현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순간감정의 포착(capture)에 대한 시각화작업에 있어 적합한 도자기법 선정과 소재가공 등을 통해 연구자의 순간 감정의 표현을 시도하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듯 과거로부터 일반적으로 쓰여져 온 여러 기법들을 참고하였으나 이런 형식적인 작업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의 시도를 통하여 작품의 개성을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흔히 오브제(object)제작은 형식이 없고 계획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나 다양한 작업방법의 시도를 통하여 얻은 제작과정을 일정하게 사용하여 디자인부터 제작까지의 효율성을 지향하였다.

표1에서 볼 수 있는 작업과정은 도자기 제작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은 연구자 감정의 조형표현에 있어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작품 제작과정 중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연마과정은 일반적인 경우 작품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에 연연해하는 것처럼 여겨 질 수 있으나 연구자의 조형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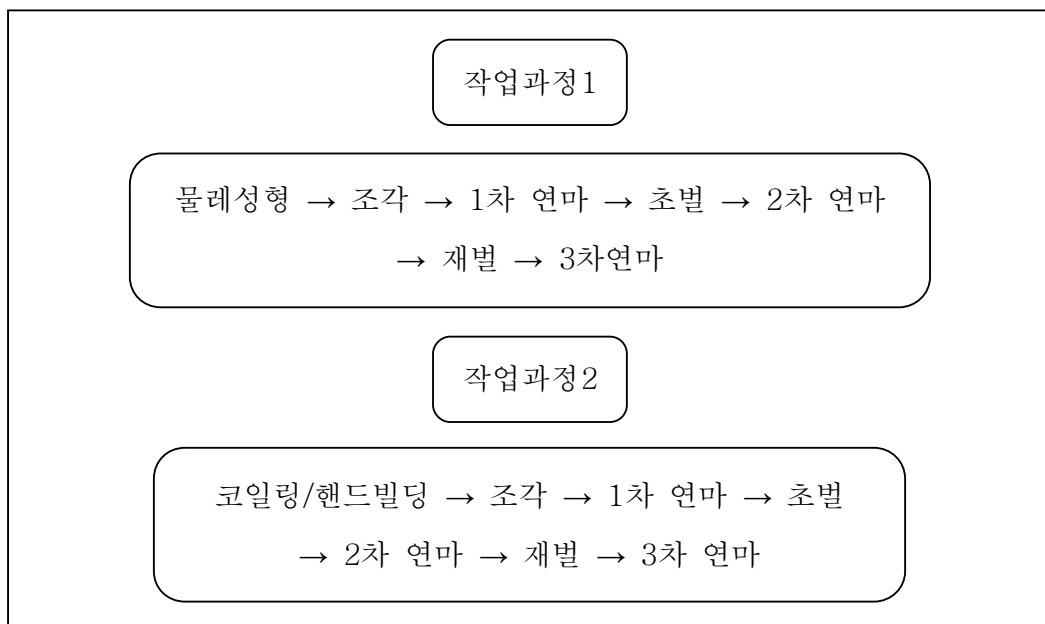
연구자는 연마과정 자체를 사람들의 삶에 대입하여 완성까지의 과정들이 현

재까지 사람들이 겪어온 경험과 시간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마과정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작업의 과정과 '연마정도'에 따른 가변성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방법론의 도출을 근거로 '화병(vase)'이라는 구체적 형상에 연구자의 감정을 이입한 오브제(object)의 형상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외부 환경에 따라 내 외면으로 변화하고 표출되어지는 연구자의 심리상태를 화병(vase)에 대입하여 표현하려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 인간이 내면에 품고 있는 감정과 그 심리상태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주관적 시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연구자의 미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 표 1 ] 작업 과정



## 2. 본 론

### 1) 조형적 고찰

#### (1) 작품의 디자인 과정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감정표현 대상에 있어 감정의 외면적 표현대상은 겹겹이 싸인 ‘꽃잎’으로 설정하였으며 내면적 표현대상으로서는 ‘병(瓶)’이라는 소재로 정하였다. 초반의 연구에서는 외면표현의 대상인 꽃잎의 형상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병(瓶)’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요소를 차용한 조형적 요소를 도출하여 두 요소를 결합한 오브제(object)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에서 제작된 화병(vase)의 하단 부분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화병(vase)의 모습이며 상단부는 유기적 곡선으로 꽃잎의 모습을 추상화한 형태로서 상하단부를 결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조형의 표현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감정표현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와 유사한 선행작품들과 작가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사례로 꽃잎을 하나의 유기체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킨 Titane Elina의 작품<sup>3)</sup>을 들 수 있다. 본 작품은 꽃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형태를 창조한 독특한 오브제(object)로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하여 사물의 원형을 작가의 시각으로 색다르게 조명된 조형의 의지를 분석하였다.

---

3) 도판 1 - p.6



[ 도판 1 ] Titane Elina-Flower



[ 도판 2 ] yoon sol - variation series

두 번째로 yoon sol의 작품<sup>4)</sup>은 화병의 모습과 꽃잎의 곡선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려는 연구자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작품으로 기본 도형인 ‘구(球)’라는 소재를 작가만의 조형언어로 분해 조합하여 재구성한 사례로 연구자의 조형논리와도 일부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이다.

한편 심리 치료학자 쉬하오이(2018)는 *감정이란 느낌, 생각, 행동을 포함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들로 심리 및 생리 상태의 종합체이다.*<sup>5)</sup>라고 말했는데 이 내용에서 연구자는 감정이란 마치 오랜 시간 풍파를 거쳐 다듬어진 ‘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의미를 형태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Burke Molly의 작품<sup>6)</sup>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조약돌에서 작은 식물이 자라난 듯한 이 작품은 자연물에 작가의 미감을 반영하고 단순화시켜 아름답게 표현한 유리작품이다.



[ 도판 3 ] Burke Molly-HoldFast\_sm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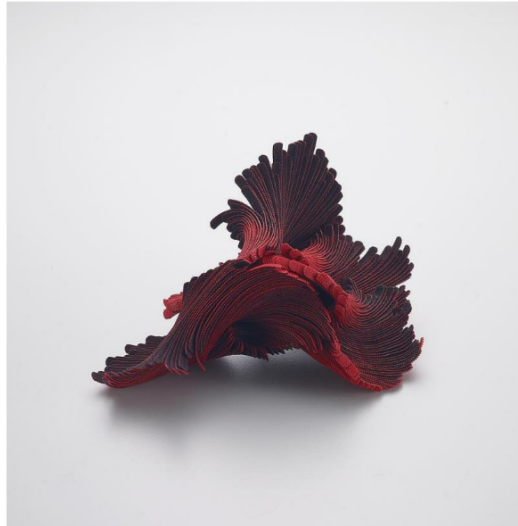
---

4) 도판 2 - p.6

5) 쉬하오이(許皓宜), [ 내 감정에도 그림자가 있다. ], 스펡크스, 2018, p.18

6) 도판 3 - p.7

초반에 제작되었던 단순한 꽃잎의 형태와는 달리 후반, 화병에 결합되는 꽃의 형상은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는 도판4에서 보여지는 YongJoo Kim의 작품과 매우 관련이 깊다.



[ 도판 4 ] YongJoo Kim - Brooch

YongJoo Kim은 작은 조각의 ‘벨크로(velcro)’를 겹겹이 바느질하여 작품을 제작하는데 유려한 곡선이 겹쳐져 꽃잎의 일부분을 재해석 한 것 같기도, 물의 모습을 표현 한 것 같기도하다.

세 번째로 사진이 아닌 순수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Barb Vogel의 작품<sup>7)</sup>은 연구자가 추구하는 자연적 요소의 색감과 분위기,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례이다. 자연물을 ‘스캔(scan)’하여 프린트 한 작품 위에 작가는 여러 ‘겹(layer)’의 왁스를 올리는데 대중에게 이 과정은 마치 ‘없는과정’이라 여겨 질 수 있으나 작가에게 있어 이 과정은 작품을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는

---

7) 도판 5 - p.9

작가만의 방법이라 생각하였고,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시도한 연마과정 또한 동일한 의미의 행위라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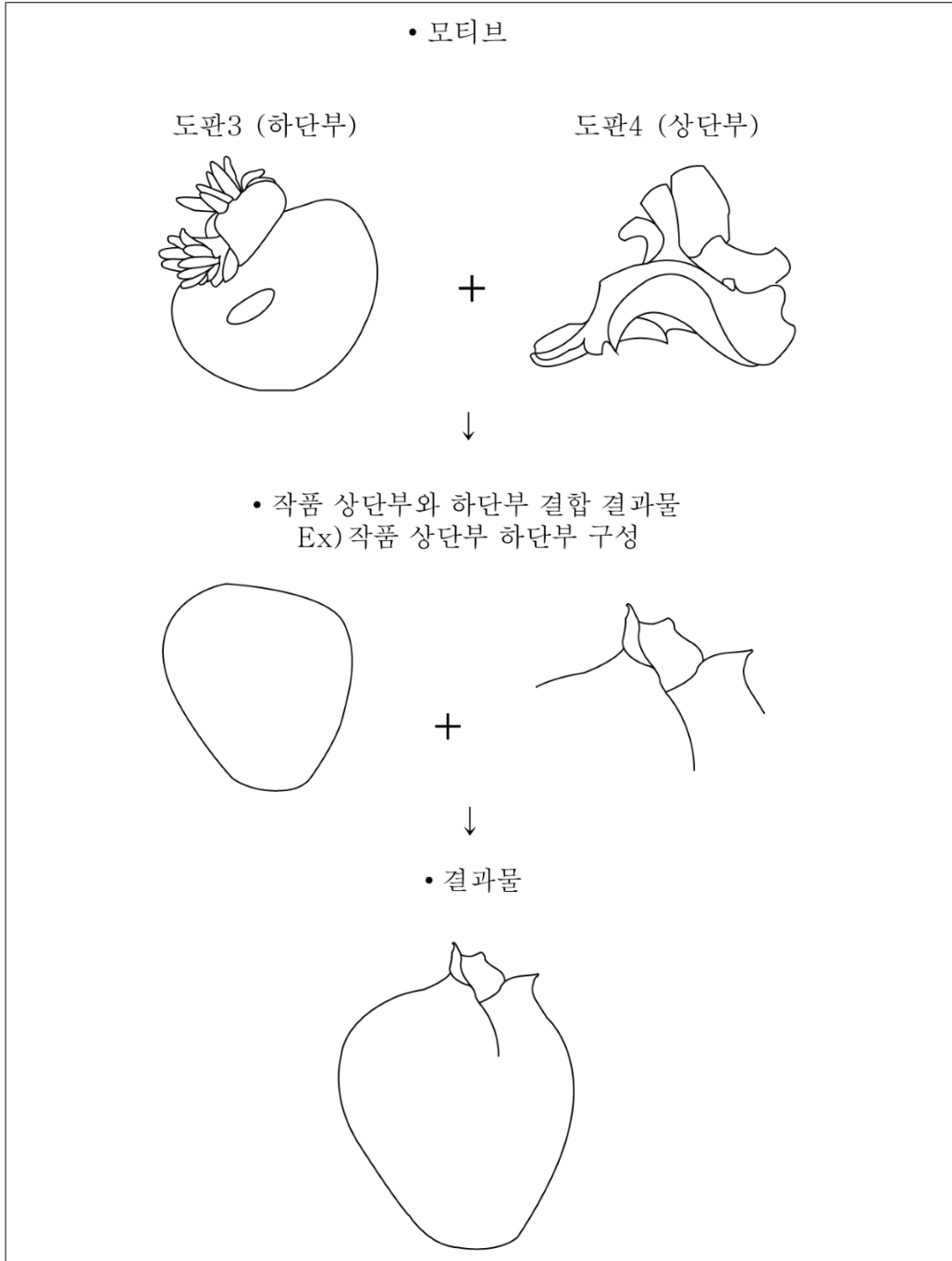


[ 도판 5 ] Barb Vogel - Rest, Lillies

위에서 제시한 각 작품들은 작가의 감정이입이 드러난 형상표현으로 예를 들면 ‘겹(layer)’이라는 복수의 형태와 돌과 같은 덩어리의 표현 등을 본인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수단으로써의 영감(motive)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것들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작업의 디자인제작을 시도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 ] 디자인과정<sup>8)</sup>



8) 작품 11 - p.26

구체적인 디자인과정의 제시방안으로는 표2를 들 수 있으며 병의 형상적 모티브(motive)로써 ‘돌’과 ‘꽃잎’을 연구자의 순간적감정의 소재로 각 작업에 적용하여 다양한 형상표현을 시도하였다.

‘병(瓶)’의 은유적표현 소재로 ‘돌’을 선정한 이유는 앞서 7페이지에서 설명하였듯 오랜시간의 풍화작용을 통해 다듬어진 돌의 형태가 다양한 경험을 거쳐 정제(精製)된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같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돌의 모습과 비슷한 비정형적인 형상으로 작품의 하단부를 표현하였으며 하늘거리는 꽃잎의 곡선을 재해석한 형태로 상단부의 형상화작업을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작품들을 유려하게 흘러가는 형태의 상단부와 조약돌과 같은 모습의 하단부가 어우러진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본 연구에 있어 연구자가 추구하는 인간감정의 시각화에 대한 이상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 (2) 작품의 전개과정

연구 초반의 작품들<sup>9)</sup>은 주로 물레 작업을 통해 입구가 넓은 ‘병(瓶)’의 형태를 제작한 다음 기물을 접합시켜 마치 꽃잎이 펼쳐져 싸인 듯한 모습<sup>10)</sup>을 형상화시켰다. 그러나 이런 작품은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형태와 의미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우선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유기적 곡선의 표현에 한계가 있었다. 물레를 통한 제작과정의 가장 큰 한계점은 조각이 시작되는 높이가 기물의 최고점인 전

---

9) 작품1 -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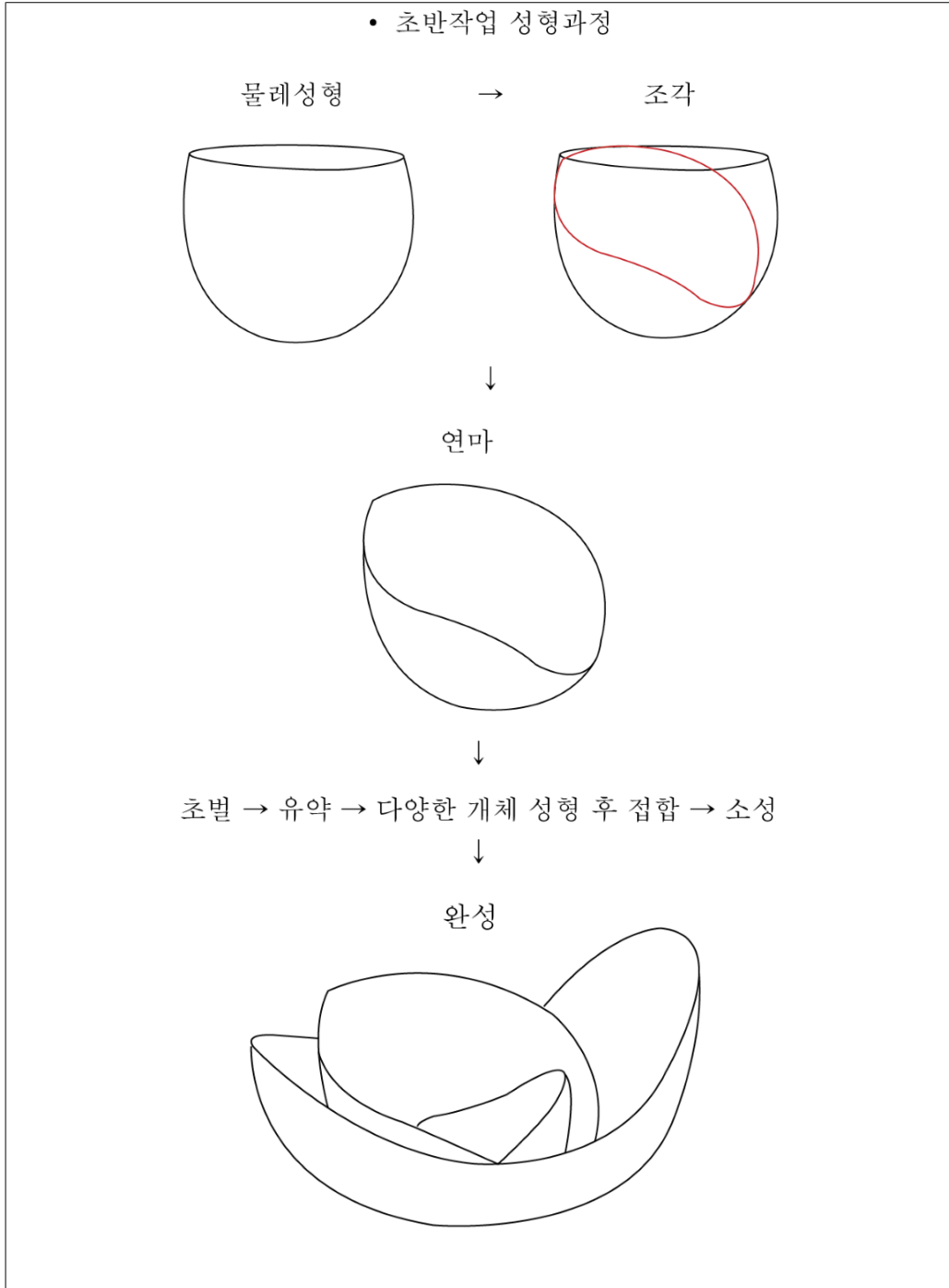
10) 표3 - p.13

부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 높이를 기준으로 조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정이 어렵다는 점, 유동적인 곡선의 성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것은 물레가 정형적인 표현에 적합한 기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레기법은 보여지는 시점에 따라 여러 면이 다른 모습으로 겹쳐져 보이는 다양한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 할 수 있었으나, 사람이 내면에 담고 있는 감정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의 한계가 있었기에 또 다른 제작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비정형적 형태의 성형작업에는 유동적변화가 쉬운 핸드빌딩과 코일링성형이 더 적합하였다. 핸드빌딩과 코일링성형의 장점은 흙을 일정한 두께로 성형할 수 있다는 점과 비정형적 형태로 성형하기 수월하다는 점이다. 내면의 감정을 담아 두는 ‘병(瓶)’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불안정한 형태부터 안정적인 형태까지 구현하기 위해 무게의 중심과 질감의 표현 또한 중요한 요소였는데 핸드빌딩과 코일링같은 성형방법은 흙의 두께를 원하는 만큼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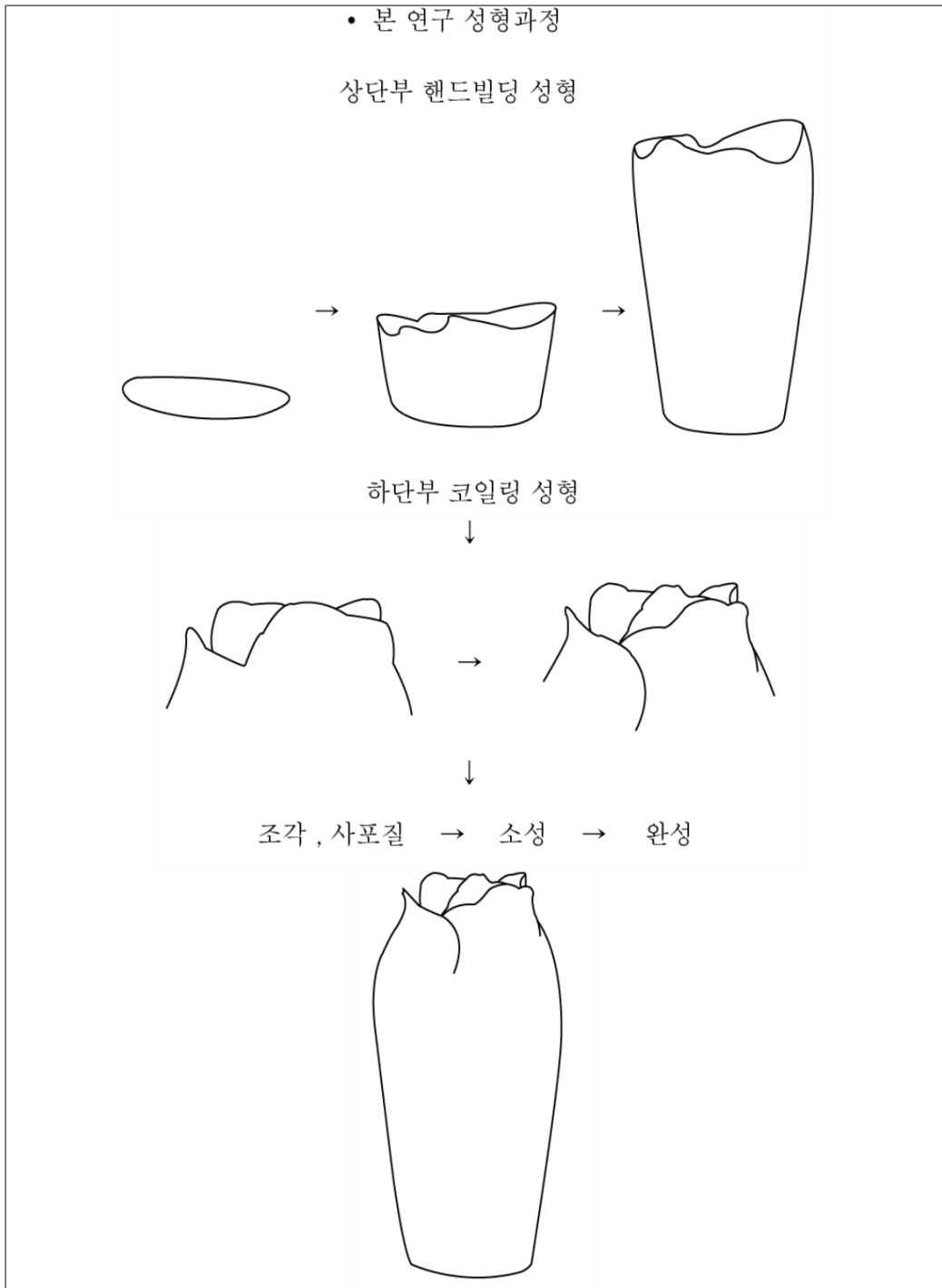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중점적 요소는 사람이 가진 본질적 부분인 ‘감정’에 대한 연구이기에 외부를 꾸미는 유약보다는 ‘흙’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하나의 점토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점토를 연구하여 사용하였다. 흙의 특성에 따라 소성법과 온도, 조각하는 힘, 연마의 정도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토의 종류는 산백토, 백토, 흑토 등 총 3종류의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변화와 질감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마작업에 있어서는 1.2차 연마과정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시간, 심리 상태를 연마작업 과정에 대입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성형시간의 대부분을 연마과정에 중점을 두어 작품마다 시간과 연마정도의 차이를 다르게하여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국의 모습이 개별적으로 다른 감정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표 3 ] 성형과정 - 1



[ 표 4 ] 성형과정<sup>11)</sup> - 2



[ 표 5 ] 점토의 특성 연구 (백자토를 기준으로)

백자토	산백토
	
<p>소성 전 회색을 띠고 있으며 알갱이가 없이 질감이 고운편이다. 소성 후 백색을 띠며 건조가 진행 후 조각시 얇은 부분이 아니면 잘 안 부서진다.</p>	<p>소성 전 갈색을 띠고 소성 후가 더 연한 색을 띠고 있다. 질감이 거친 편이고 소성 후 검은 알갱이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건조가 진행 후 조각시 강도가 백자보다 더 높다.</p>
흑토	연리문
	
<p>소성 전 붉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큰 알갱이가 섞여 있어 질감이 매우 거친편이다. 소성 후 어두운 갈색을 띠며 건조가 진행 후 강도가 매우 강하다. 녹는점이 낮아 낮은 온도에 소성해야 한다.</p>	<p>질감과 색감이 다른 점토의 결합으로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조 속도와 정도가 다른 점토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뒤틀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다.</p>

2) 작품설명



[ 작품 1 ] Blossom \_ 1

작품크기 : FRONT Ø 24 X 21 X 11 cm

BACK Ø 28 X 23 X 15 cm



[ 작품 2 ] Blossom \_ 2  
작품크기 : Ø 21 X 14 X 19 cm



[ 작품 3 ] VASE \_ 1

작품크기 : Ø 8.5 X 8.5 X 25 cm



[ 작품 4 ] VASE \_ 2

작품크기 : FRONT Ø 12.5 X 12.5 X 17.5 cm

BACK Ø 10.5 X 10.5 X 24.5 cm



[ 작품 5 ] VASE \_ 3

작품크기 : 8 X 14.5 X 14.5 cm



[ 작품 6 ] VASE \_ 4  
작품크기 : 8 X 7.5 X 23 cm



[ 작품 7 ] VASE \_ 5  
작품크기 : Ø 15 X 15 X 23 cm



[ 작품 8 ] VASE \_ 6

작품크기 : Ø 18 X 18 X 27.5 cm



[ 작품 9 ] VASE \_ 7  
작품크기 : 24 X 6.5 X 33 cm



[ 작품 10 ] VASE \_ 8  
작품크기 : 13 X 7 X 26 cm



[ 작품 11 ] VASE \_ 9

작품크기 : FRONT 15.5 X 9.5 X 12 cm

BACK 16 X 10.5 X 25.5 cm



[ 작품 12 ] VASE \_ 10

작품크기 : Ø 13.5 X 13.5 X 10 cm



[ 작품 13 ] VASE \_ 11

작품크기 : LEFT Ø 7 X 7 X 20 cm

RIGHT Ø 5.5 X 5.5 X 10 cm

• [ 작품 1, 2 ] Blossom \_ 1, 2

제작방법 : 백토, 물레성형, 조각, 1250° C, 환원소성,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물레성형으로 ‘병(瓶)’의 형태를 제작 후 조각과 연마과정을 통해 제작한 작업으로 꽃잎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화 시킨 형태들을 겹쳐 유약으로 부착시켰다.

인간의 감정은 마치 꽃잎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겹(layer)’으로 겹겹이 싸여 있다고 본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연구자가 생각한 감정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작업으로 백토를 이용하여 색을 배제하였기에 형태에 집중할 수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겹(layer)’의 간격을 넓게 연출함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보호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이와 소통하기 좋아하고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시각화 한 것이다. 마치 꽃잎이 만개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즐거운 시간의 일부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작품 3 ] VASE \_ 1

제작방법 : 흑토, 산백토, 백토, 핸드빌딩, 조각, 110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작품1, 2를 기반으로 하단부에 ‘병(瓶)’의 형태를 결합하기 시작한 작품으로 하단에는 물레성형을, 상단부는 핸드빌딩을 통해 제작하였다.

좌우 대칭의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기에 한정적인 부분을 혼합된 점토를 이용하여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려 하였다.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의 격정적인 모습을 소용돌이쳐 화려하게 올라가는 느낌의 연리문으로 연출하였다.

안으로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듯 복잡하나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차분한 어떤 이를 시각화하고자 한 작품이다. 본인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억누르는 상태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상단부를 단순하게 마무리하여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핸드빌딩으로 곡선을 단순화 시켜 형태를 마무리하였다.

• [ 작품 4 ] VASE \_ 2

제작방법 : 흑토, 산백토, 실크백자, 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물레로 제작하여 단아한 모습을 한 하단부에 자유롭게 제작된 곡선을 결합시켜 전체적인 느낌이 앞선 작품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연출된 작품이다.

하단부의 형태를 타고 올라간 문양들은 세 가지의 흙이 조합되어 마치 겹겹이 차오르는 꽃잎의 형태를 한 대리석처럼 성형하였다.

연한 색상을 사용하여 형상화하고자 감정이 자극적인 즐거움보다는 자그마한 행복이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꽃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된 상단부는 즐거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솔직하고 풍부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시각화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 작품 5 ] VASE \_ 3

제작방법 : 산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유약

작품설명 : 물레성형에서 벗어나 다른 성형방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 성형을 시도한 작품이다.

제약이 많은 일상생활을 각진 육면체의 모습으로 연출해 보았는데,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되게 상단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모습은 본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소극적이거나 유연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기 때문이다.

본 작품은 푸른 계열의 유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두께에 따라 두꺼운 부분은 어두운 남색, 얇은 부분은 노란 빛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 파란색=Blue는 ‘우울한’이라는 의미<sup>12)</sup>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이 의미를 적용시켜 제약이 많은 생활에서 점점 푸르게 물들어가는 즉 우울해져 가는 사람의 모습을 색으로 나타내려 하였으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본인만의 방어막을 만들어 내면을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을 유약이 점토를 감싸며 완성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 [ 작품 6 ] VASE \_ 4

제작방법 : 흑토, 핸드빌딩, 조각, 110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판 성형을 통한 연구를 지속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하단 부분은 판

---

12) Blue, 옥스퍼드,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성형으로, 중반부터 코일링과 핸드빌딩 성형으로 제작하였다.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유약이 아닌 점토자체에 변화를 주어 작품에 의미를 더하려 하였다. 흑토 위에 안개가 낀 것과 같은 느낌의 푸른빛이 도는 색감의 화장토를 사용하여 차가운 느낌을 주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는 마치 금속의 질감과도 같이 보이는데 작품5와는 다른 방법으로 감정이 우울하게 물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하고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별다른 즐거움 없이 단조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단부에 표현하려 하였으며 그와는 반대로 상단부는 매우 유려한 곡선으로 연출되었다. 이는 외롭고, 단조로운 내면 감정과는 다르게 즐거워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형상화하려하였다.

#### • [ 작품 7 ] VASE \_ 5

제작방법 : 산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사진상으로 보았을 때 물레 작업과 같이 좌우 대칭의 형태처럼 보이나 핸드빌딩으로 성형 된 작품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며, 화병 입구의 모습도 구멍이 있는 모습부터 기울어져 보이는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진 작품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안정적인 계란 형태에 입구의 모습은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잎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안정적인 내면 감정과 그 감정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이 가진 일부의 모습일 뿐, 아름다운 모습부터 시작하여 일그러진 모

습, 위태로운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들을 이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타인을 바라볼 때, 보는 이들마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표현해 준 작품으로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 [ 작품 8 ] VASE \_ 6

제작방법 : 흑토, 핸드빌딩, 조각, 110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작품7과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처럼 보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형태가 다른 작품이다. 감정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어두운 색의 흑토를 이용하여 표현했으며 전반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는 연구작품이다.

상단부분은 단순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이 제작되었지만 빛의 농도로 인해 시각적으로 겹쳐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 사람의 모습은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감정의 '겹(layer)'이 잘 드러나지 않는 차분한 모습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남들은 잘 알 수 없는 내면감정의 '겹(layer)'을 직접 표현이 아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하였다. 연마의 단계를 축소시켜 조각의 흔적을 남겨두어 개개인마다 상차받은 감정의 모습을 질감으로 표현하였다.

• [ 작품 9 ] VASE \_ 7

제작방법 : 흑토, 핸드빌딩, 조각, 110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앞서 제작된 작품들과는 달리 사방으로 입체감이 있는 형태가 아닌 평평한 형태로 깨질 것만 같은 모습의 작품이다.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넘어져 부서질 것만 같은 심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려 했으며, 작품8과 같이 빛으로 인하여 생기는 농담의 깊이가 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로 생겨난 ‘겹(layer)’이 내면의 감정들을 덮어 감춘 것 같이 보인다.

가상의 모습으로 생겨난 감정의 ‘겹(layer)’이 방어 기제로써 현실 도피를 할 수 있게 견디기 힘든 감정을 덮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바닥부분은 폭을 매우 좁게 제작하여 안정적으로 심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감정이 부풀어 올라 터질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 작품 10 ] VASE \_ 8

제작방법 : 흑토, 산백토, 백토, 핸드빌딩, 조각, 110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작품9와 같이 평평한 형태를 하고 있으나 폭이 더 넓고, 바닥과 상단부 또한 넓게 제작하여 안정적인 모습으로 성형하였다.

힘들고 즐거운 일들을 겪어내고 안정적인 감정상태를 지닌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시간 풍파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돌의 형태와 색상을 모티브(motive)로 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돌의 무늬를 연상시키

는 차분한 색상으로 조합된 점토를 층층이 쌓아 올려 돌의 단면과 같은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안정된 내면감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외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동시에 여러 감정이 표출되는 모습을 시각화 하기 위해 이전 작업들과는 달리 '겹(layer)'이 본체에서 형성되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본체 자체를 조각하여 은은하게 형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감정의 '겹(layer)'이 내부의 감정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 작품 11 ] VASE \_ 9

제작방법 : 산백토, 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경험과 상황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 극도로 예민해진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 한 작품이다. 외부로 드러나는 인간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핸드빌딩과 조각을 통하여 굴곡의 높낮이와 상단부의 모습을 얇고 날카롭게 연출함으로써 감정의 변화에 예민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하단 부분의 형태는 조약돌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비대칭적인 형태로 제작되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겪어 온 다양한 경험 중 안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게 해준 경험의 모습을 안정적인 완만한 곡선으로, 불안정한 감정을 형성하게 해준 경험을 터질 듯 팽창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동시에 결합시켰다. 이러한 내부의 불안정한 감정들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형태로 표출되어 화병의 입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작품을 개성있는 하나의 오브제(object)로 완성시켰다.

• [ 작품 12 ] VASE \_ 10

제작방법 : 산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물레로 제작되어진 듯한 형태의 작품으로 순수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시각화하였다.

연구과정동안 다양한 성형방법과 의미표현을 위하여 불안정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과장된 형태를 한 작품으로 표현해왔다. 그러나 연구가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외부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며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 시키고 싶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선 직접적인 표현이 어울린다고 여겨 색상과 형태를 단순화 시키고, 감정의 '겹(layer)' 또한 한가지의 감정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이 작품은 입구 부분이 약간 함몰되어 있다 튀어 나오는 형태인데 감정이 표출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연출로, 순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표출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감정이 슬픔, 행복,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 중 어떠한 것일지는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 싶었다.

• [ 작품 13 ] VASE \_ 11

제작방법 : 산백토, 핸드빌딩, 조각, 1250° C, 산화소성, 연마

작품설명 : 작품12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으로 불안정적인 모습이 없는 일자형의 실린더(cylinder)형태로 이루어진 화병세트이다. 순수한 감정을 가진 사

람의 모습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작품12와 다른 점은 좀 더 미성숙한 인간상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완벽한 직선이 아닌 약간 불룩한 형태로 제작하여 심리적인 부분이 본인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과정의 시작을 형상화한 것으로 감정의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이 조금씩 진행되며 옆으로 넓어지는 모습, 또는 위로 길어지는 모습 등 변화해 가는 모습 또한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감정이 생성되어 가는 '시작'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색을 최대한 배제하여 순수한 느낌을 추구하였고, 외부의 영향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흠집이 생기기 쉬운 매트한 유약을 통해 표현했다.

마무리 작업들을 안정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각화 시킴으로써 작품이 내제된 의미를 대중적으로 다양성이 있게 추구하고자 하려는 시도를 했다.

###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이 바쁜 삶에 지쳐 지나치기 쉬운 본인과 주변인들의 감정을 돌아보고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오브제(object)’라는 예술적 사물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연구자가 느끼는 감정의 순간적 포착(capture)을 꽃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의 곡선과 ‘병(瓶)’이라는 조형적 요소를 이용하여 오브제(object)로 표현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꽃잎이 겹쳐지는 형상을 활용하여 화병(vase)이라는 실용적 공예품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성품의 용도를 벗어나 연구자의 미감과 감정을 기반으로 화병(vase)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분리한 오브제(object)형상으로 시각화시켰다. 이것은 대중에게 본인과 타인이 가진 감정이 형태로 시각화되어진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개인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작품들은 화병(vase)으로서 용도를 가지지 못한 사물로 제작되어졌으나 대신 현대인들의 삶에 조용히 융화되어 지친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개체로써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시각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존재의 내면감정과 표출되어지는 감정의 일부분을 흙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실체화 하고자 하였다. 흙의 질감, 색감, 유약 혹은 화장토와 결합을 통한 분위기 등을 바탕으로 감정의 시각적표현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연마과정을 통한 다양한 질감의 변화를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연구를 통해 얻어낸 이론적 사고와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미감

이 합쳐져 결과물로 형상화되어지기까지 연구자는 제작이 시작된 순간부터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지니고 있던 미감이 더 주관적으로 발전되어 오브제(object)로서의 개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연구과정을 통해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연구자의 내면감정을 되짚어 보며 왜 이러한 미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뇌의 시간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병(vase)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유기적 곡선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오브제(object)의 영역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 사물이 내포하고자 하는 의미와 시각화되어진 형상의 연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도출되는지 알아 볼 수 있었다.

금번 논문에서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화병(vase)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갔는데 그에 따라 소장품으로써 한정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된 의미를 가진 소장품은 일부 대중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넓은 폭의 대중과의 토론, 소통을 위해 대중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금후의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서의 작품제작을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약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며 크기의 다양성을 통해 여러 환경에 융화될 수 있는 오브제(object)로서의 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 웹사이트 ]

- Sherrie Gallerie – [www.sherriegallerie.com](http://www.sherriegallerie.com)
- Yoon Sol Craft Work – [yoonsol.com](http://yoonsol.com)
- Antonija Classic Art gallery – [www.antonija.lv](http://www.antonija.lv)
- 옥스퍼드 –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 [ 학위논문 ]

- 김혜원, 「自然에 대한 探求로서의 陶磁 表現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1997
- 김소현, 「오목과 볼록의 특성을 활용한 도자 오브제 제작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2018

### [ 단행본 ]

- 오가와 히토시 저, 「인간은 양파다」, 홍익출판사, 2018
- 쉬하오이 글, 「내 감정에도 그림자가 있다」, 스텝크스, 2018

# **ABSTRACT**

## **A Study of Bottle through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Change**

**Lee EunSu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s sentiments are made up of emotions that are internally stagnant throughout their lives and fluid emotions that are expressed to the outside. The researcher has focused on these emotions and has tried to reinterpret it as a 'bottle' through subjective interpretation, inspired by natural objects such as flowers and stones.

"Bottles" have been created through various civilizations for a long time, and contain numerous forms and meanings.

In this study, attempting to express the emotions of researcher and people as objects of expression, the researcher has attempted to visualize 'bottle' as an 'object' rather than as a thing with a practical function.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visualizing the momentary

emotions of researcher, and the methods of expression needed to do this were studied.

The visual presentation method of emotion was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preceding work and organizing the main points that could theoretically embody the feelings felt by the researcher.

Especially, the act of carving, polishing, and the expression means such as 'layers' of petals and forms of stone was derived, and individual shapes were tried to be expressed using them.

Through this, the researcher has attempted to express pure formative expression that could communicate with the emotions of the modern people through the 'object work' involving the subject 's feelings rather than the practicality of the 'bottle'.

Finally, the researcher has imagined what the feelings of others would be when they saw the work that was shaped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er. The researcher has also tried to suggest the formality that can respond to the emotions of the public through the sympathy of the modern people and various emotions.